■ 민족문화연구 제99호(2023.05.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387-433.
http://doi.org/10.17948/kcs.2023..99.387

1950-60년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전시와 그 영향*

국성하(鞠聖河)**

목 차

1. 서론
2. 휴전이후 1950년대까지의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
3. 1960년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
4. 1950-60년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전시의 영향
5. 결론

국문초록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미국의 정치사상,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영화, 출판, 방송, 전시 등의 영역에서 노력했다. 전시는 주로 서울 미국공보원 문화관과 부산 등의 미국공보원을 이용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공간을 대여하는 전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 등을 소개하는 전시를 열었다. 1960년대에는 한국에서의 공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반공, 경제, 과학 등의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진행했다. 미국공보원 서울지부의 전시는 자국의 공보원에서 제작한 전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했고, 서울지부에서 직접 기획, 제작한 전시도 있었다.

미국공보원의 전시는 1960년대부터 보다 활발해졌는데, 대표적인 전시로는 1960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 1961년 [베를린 :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 [반공전시회] 등이 있었다.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전시도 있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개최했던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 전시,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진행되었던 [선거] 전시, 1963년 베트남에서의 상황을 다룬 [베트남에서의 게릴라 전쟁] 전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련과의 우주개발 경쟁과 연관해서 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도 개최되었는데,

* 이 논문은 2020년 12월 5일 한국박물관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던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관.

1960년 [파이오니아 인공위성] 전시 등이 있다.

미국 공보원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계속적으로 지지해 줄 심리적 영향의 필요에서 전시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미국 공보원은 각 전시를 진행한 이후 해당 전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전시에 참가한 양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직접적인 평가 등을 점검했다. 미국 공보원의 전시는 냉전이라는 체제 아래서 한국인이 미국의 문화, 정치, 과학 등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주제어: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문화원, 전시, 전시평가, 미국 문화 소개.

1. 서론

주한미군사령부 민정공보국(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은 1947년 5월에 창설되었고, 1947년 8월 11일에 서울역 인근에서 그 실제적인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정공보국의 목적은 미국인의 생활을 한국인에게 소개하려는 것이었고, 영화와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미국문화 소개와 문화교류를 계획하였다.[1] 1948년 4월 29일에는 미국공보원(U. S. Information Service : USIS)의 소속으로 남대문로 전 수도관구 경찰청 자리에 미국문화연구소를 설치하였다.[2] 1948년 미국공보원 문화연구소에서는 이후 고암 이응노의 동양화 개인전,[3] 국제보도연맹의 제1회 [한국향토문화사진전][4] 등이 열렸다. 미국공보원은 1949년에는 해방이후 한국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독립기념 보도사진전],[5] 제2회 [한국향토문화사진전]을[6] 개최하였다. 6・25전쟁 이전에 미국공보원은 미국문화연구소의 공간을 이용해 몇 가지 전시를 진행하였다.

---

1)「美國公報院을 開院 朝美文化交流 計劃」,『경향신문』1947.8.12, 2면(허은에 따르면, 1947년 5월 민정공보국(OCI/Office of Civil Information)이 처음 설치되는데 이는 미국인의 생각을 한국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미군정의 조직이었다. 이러한 물적 기반은 1948년 이후 미국 공보원(USIS/K)에 그대로 계승되었다(許殷,『美國의 대한 文化活動과 韓國社會의 反應—1950년대 美國政府의 文化活動과 知識人의 對美認識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209면).

2)「美國公報院 文化硏究所 設置」,『동아일보』1948.4.29., 2면.

3)「李應魯畫伯 個人展」,『동아일보』1948.6.11., 2면.

4)「鄕土文化寫眞展覽會」,『동아일보』1948.10.30., 2면.

5)「獨立紀念報道寫眞展覽會開催」,『동아일보』1949.8.7., 2면.

6)「鄕土文化寫眞展」,『경향신문』1949.10.13., 2면.

6·25전쟁 이후 한국공보처는 1951년 2월에 3·1절을 기념하는 [전황사진 보도 이동 전시회]를 부산의 도청, 문화극장, 시청 앞 등에서 개최했는데, 미국공보원이 후원했다.[7] 미국공보원은 1951년 4월 15일부터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업무를 시작했고,[8] 8월에는 [한국동란 사진 전람회]를 서울 삼정빌딩에서 개최했다.[9] 1952년 11월에는 미국공보원 도서관에서 소설, 평론 등 미국문학에 관한 최신 서적 전시회를 개최했다.[10] 6·25전쟁 휴전 이후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는 처음에 공보원의 공간을 대여해 주는 형태의 전시 진행하였고, 195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의 문화, 과학 등을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한다. 1956년 1월에는 대구 미국공보원에서는 [미국의 음악]이라는 화보 특별전,[11] 9월에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회]를 서울 덕수궁 등에서 개최했다.[12]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활동은 미국의 다양한 공보활동의 일부분이었다. 미국의 공보활동은 국무부와 미국공보처(United State Information Agency : USIA)가 분담했는데, 국무부가 교육교환계획 등을 공보처는 미국의 대외정책 선전 등을 맡았다. 미국공보처는 각 국가별 공보원(USIS)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영화, 출판, 정보,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제공하였다.[13]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여론조사, 국제교환 프로그램, 문화원 운영, 영화제작, 서적 번역, 라디오 방송 송출, 전시회 운영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활동은 냉전시기 미국이 구사한 문화정치의 사례로도 이해될 수 있다.[14]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의 공보활동은 냉전적 세계질서의 성립과 변화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박태균은 1950년대 세계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냉전적 세계질서가 성립이라고 말하며, 6·25전쟁은 냉전적 세계질서를 고착화하는

---

7) 「3.1紀念 戰況 寫眞展」, 『조선일보』 1951.2.26., 2면.
8) 「美國公報院 서울서 業務開始」, 『동아일보』 1951.4.21., 2면.
9) 「美公報院서 寫眞展 開催」, 『조선일보』 1951.8.19., 2면.
10) 「美公報院서 新刊書籍을 展示」, 『조선일보』 1952.11.3., 2면.
11) 「音樂畫報展示 大邱 美公報院서」, 『동아일보』1956.1.24., 4면.
12) 「原子力展示 盛大한 開會式」, 『동아일보』 1956.9.17., 3면.
13) 허은, 「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한국사학보』 15, 고려사학회, 2003, 231면.
14) 정일준, 「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 만들기': 1950·60년대 미공보원(USIS)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 『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003, 47면.

역할을 했다고 하였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현안은 재정적자 축소, 균형예산, 건전한 경제로 표현되는 '뉴룩(New Look)'정책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및 한국군 감축, 경제원조 감축 등을 추진하였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 뉴룩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했고, 이승만 정부와의 갈등 관계가 있었다고 했다.[15] 반면에 케네디 정부는 대외원조의 증가가 재정적자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 동시에 후진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일정정도의 독재정권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였다고 했다. 후진국의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보다는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사회개혁을 구상했고, 이는 공산주의적 혁명을 막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16]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뉴룩정책 실현의 어려움, 케네디 정부의 후진국 사회개혁 구상 등은 적어도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에서의 공보정책의 변화가 있게 하였다. 1960년에 작성된 「한국국가계획(Korea Country Plan)」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활동을 위한 보다 장기적인 지침이었다. 공보의 대상에 따라 학계, 언론계, 대학생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반대중에게는 영화나 활자매체를 통해 미국정책을 알리는 방법으로 공보 계획을 설정하였다.[17]

케네디 행정부는 대외원조를 통해 공산주의와의 체제 경쟁에서 우의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미국의 원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미국에도 부담이었다. 케네디 행정부는 한국정부가 전적인 원조경제에서 벗어나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18] 한국의 자립경제 강조는 근대화이론과 연결된다. 근대화이론은 저발전국 원조를 미국 내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저발전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대안이었다. 로스토우(W. W. Rostow)는 1950년대에

15) 박태균, 「잘못 깨운 첫 단추—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 『역사비평』 86, 역사비평사, 2009, 87-100면.
16) 박태균,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 변화: 후진국 사회의 변화 필요성」, 『미국사연구』 20, 한국미국사학회, 2004, 187-188면.
17) 정일준, 앞의 글, 2003, 21-50면.
18) 김준형, 『새로 읽는 한미 관계사—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창비, 2021, 93면.

수립한 자신의 근대화론을 케네디 행정부의 공식적 외교정책으로 전환시켜 한국에 적용한다. 케네디 행정부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장기적인 목표 중의 하나는 생존할 수 있고 성장하는 경제, 한국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 자유세계의 요구와 목표에 부합하는 국가정책으로 삼았다.[19] 제3공화국이 추진한 조국 근대화 운동도 이러한 케네디 정부의 한국 근대화론과 연결될 수 있다.

먼저 미국공보원 또는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활동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한국에서의 활동은 공보원 활동 일반에 대한 연구와 공보원 활동 중 영화제작 등의 연구가 있다. 허은은 1953년 이후 미국 정부 내 대외 문화, 공보활동 업무는 국무부와 미국공보처가 분담했고, 국무부가 교육교환계획을, 해외공보처는 미국의 참모습과 대외정책 선전을 담당했다고 했다. 해외공보처는 미국 대외정책 선전과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산하에 영화, 출판, 정보, 방송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고 미공보원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하였다. 한국에서의 미국 공보원의 임무는 대한민국의 존립 조건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 목적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최선임을 여론 주도층과 대중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었다고 했다. 영화제작소, 도서관, 영사차량 등을 운영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하부 지부(sub-post)와 출판물을 배포하는 보급소(Distribution point)를 두고, 지방문화원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공보활동을 진행했다고 하였다.[20] 아울러 1960년대 주한 미국공보원은 미국이 구상하는 근대화 진행하고, 근대화에 요구되는 신념을 불어넣고, 적대적 요인들을 배격하도록 만드는 일련의 심리전을 벌이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고 했다.[21] 정일준은 미국공보처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임무와 조직을 정리하고「한국국가계획(Korea Country Plan)」과 「한국평가보고서(Assesement Report-Korea)」를 중심으로 1960년대 이후 미국공보원

19) 정일준,「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1960년대 한국사회의 근대화—근대화이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37-49면.
20) 허은,「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한국사학보』15, 고려사학회, 2003, 9・231-237면.
21) 허은,「1960년대 미국의 한국 근대화 기획과 추진—주한미공보원의 심리활동과 영화」,『한국문학연구』3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240면.

한국지부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1960년의 [인류의 위대한 사상], [평화를 위한 원자력], [미국의 선거] 등의 전시, 1965년의 [10년간의 한국의 발전상] 전시, 1966년의 [제미니 우주선 모형 전시회]를 언급하며, 전시를 통해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자유진영의 중심인 미국의 문명적 성취가 소련보다 우월함을 보여줌으로 자유진영 최전선에 위치한 대중으로부터 미국의 지도적 지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고자 했음을 주장했다.[22] 고근은 군사력과 더불어 문화적 보편성과 국제적 환경을 규정하기 위해 연성권력(Soft Power)의 중요성을 미국은 인식했는데, 냉전체제에서의 미국 문화외교의 목적은 대상국가가 미국의 힘과 능력 곧 문화적 성취를 알게 하여 자유진영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하려는 데 있었으며, 이를 위해 미국 공보원은 한국에서의 실천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했다.[23]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일반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 중에는 해방이후부터 6·25전쟁기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있었다. 장영민은 6·25전쟁기 주한미국공보원의 선전매체 활동이 전쟁초기에는 남한주민과 국군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선무심리전에 치중했지만, 전세가 역전 되고 미국의 심리전 태세가 정비된 후에는 정책홍보와 문화전파 선정활동이 중심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주한미국공보원은 인쇄출판물, 라디오, 영화, 시각 전시물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였고, 대표적인 것은 글과 그림을 위주로 한 인쇄매체였다고 하였다.[24] 남영희와 이순옥은 해방기 주한미국사령부 공보원이 설치한 공보원 지역분관에 대해 고찰했다. 공보원 지역분관은 남한 내 주요 지역 11곳에 설치되었고, 미국 관련 자료의 번역과 배포, 강연과 전시 등 직접적인 대민접촉 활동에 주력하였다고 했다. 특히 각지역 분관의 문화활동을 각 지역 신문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고찰했고, 11곳의 지역분관에서 문화예술 지원활동,

22) 정일준, 앞의 글, 2003. 21-46면.
23) 高槿, 『Projecting "Soft Power" of the United States on South Korea : "Perception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Korea during the 1950s and 1960s』,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81면.
24) 張泳敏, 「한국전쟁기 주한 미국공보원의 선전활동—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124면.

교육활동, 대중계몽과 교양증진 활동, 선전활동 등을 진행한 것을 확인하였다.[25] 미국공보원의 조직, 일반적 활동과 한국에서의 역할은 선행연구에서 심고 있게 고찰되었지만, 미국공보원 한국지부가 진행했던 전시에 집중하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전시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공보활동에서 지녔던 다양한 의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활동 중에서 영화 부문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허은은 1960년대 주한미국공보원은 미국이 구상하는 근대화를 추수하도록 유인하고, 근대화에 요구되는 신념을 불어 넣고, 적대적 요인을 배격하는 심리전을 벌였는데, 보도영화와 기획영화는 주한미국공보원이 적극적으로 활용한 매체였다고 하였다.[26] 차재영과 염찬희는'문화적 냉전'이 본격화된 1950년대 주한미국공보원 선전 프로그램을 개관하고, 영화 관련 활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주한미국공보원은 영화를 선전에서 가장 유용한 매체라 간주하고, 보도영화와 기록영화를 제작하고, 영화관과 학교 등 다양한 채널로 이를 배급하고 상영하였다고 하였다. 기록영화를 분석하면서 미국국민이 건전한 민주시민이며, 과학기술로 근대화된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시하고, 건국 초기 미국인들을 새로운 문명을 일군 교양 있는 개척자로 이미지화했으며, 한국의 재건 지원에서 미국인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27] 김한상은 1953년부터 1958년까지 주한미국공보원이 국내에서 제작한 영화 및 영화 풋티지(footage) 8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했다. 이 영화들은 한국인 관객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나 공식적인 발화의 주체는 미국 정부기구라는 점, 대부분의 제작인력은 한국 현지에서 고용된 한국영화인이라는 영화의 생산과 소비과정의 복잡성이 있다고 했다. 영화에서는 미국화된 주체로서 지식인과 젊은 세대가 동일시의 대상으로 설정되고, 전통적 신앙과 농사 기법을 고수하는 구세대는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되며, 젊은 세대는 미국식

25) 남영희・이순옥,「해방기 주한미국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의 설립과 문화활동」,『석당논총』78,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0, 109-110면.
26) 허은, 앞의 글, 2008, 197-198면.
27) 차재영・염찬희,「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의 기록영화와 미국의 이미지 구축」,『韓國言論學報』56-1, 한국언론학회, 2012, 235면.

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백인과 동일시되지 않으며, 구세대는 대안적 주체성의 외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했다.[28] 김한상은 〈리버티뉴스〉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는데, 주한미국공보원 리버티프로덕션(Liberty Production)의 대표 제작물이었던 〈리버티뉴스〉는 1953년부터 한국 정부 공보처가 제작한 〈대한뉴스〉와 함께 뉴스영화가 일반 상영관에서 항시적으로 상영되던 관행 속에서 안정적인 보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는 1950년 5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주한미국공보원에 대한 치하 담화를 발표하는 등 한국정부가 주한미국공보원 공보활동에 대해 자국 공보활동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허용한 배경 속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는 집권기간 동안 주한미국공보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존재라고 명시했다.[29] 김한상은 미국 공보기구들은 문화영화라는 이름으로 미국산 다큐멘터리를 수입해 이국적인 삶을 전시했고, 한국영화인들을 고용하여 한국의 소실을 다루는 현지용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였다. 영화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보기구 영화에서 서구문화의 계승자이면서 동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했다.[30] 이성철은 주한미국공보원의 영화제작소가 창원군 상남면에 설치된 경위와 상남영화제작소에서 제작된 경남지역 관련 영화 분석을 통해 경남지역 영화사와 사회문화사를 보완하고자 했다. 1950년대 경남 마산지역을 배경으로 제작된 주한미국공보원 영화를 특정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만 조망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문화적 자원으로 전환할 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리버티프로덕션'에서의 카메라 맨, 현상, 녹음, 편집기사들의 경험이 한국영화산업 기초확립에 일조한 측면을 강조하였다.[31] 김은영은 미국이 수집하고 재배치한 시각적인 증거를 영화라는 복잡한 시각을 자유세계 질서에

28) 김한상, 「주한미국공보원(USIS) 영화선전의 표상과 담론」, 『사회와 역사』 95, 한국사회사학회, 2012, 247·271면.
29) 김한상, 「주한미국공보원(USIS) 영화의 응시 메커니즘—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와 가시화하는 힘의 과시」, 『역사문제연구』 30, 역사문제연구소, 2013. 169-170면.
30) 김한상, 『Uneven Screen, Contested Identities—USIS Cultural Films and the National Imaging in South Korea 1945-1972』,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3, 325-327면.
31) 이성철, 「1950년대 경남지역 미국공보원(USIS) 영화제작 활동—창원의 상남영화제작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4-2, 지역사회학회, 2013, 105·139면.

부합한 것으로 구성하고, 각국 미공보원이 이를 배급하여 미국의 정책을 선전하려 했다고 했다. 1960년대에는 극단적인 반공 영화는 5·16 군사정변 이후 한국사회에 6·25전쟁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32] 김려실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미디어라는 요소를 결합했던 미국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미국공보원 영화 제작 활동을 고찰하고, 아시아 문화(Asia Culture)로 분류된 필름을 검토하였다. 1950-60년대에 걸쳐 미국공보원의 영화는 미국이 아시아 외교상 직면했던 문제와 연관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 갔다고 했으며, 미국이 아시아와의 문화외교를 통해 의도했던 바는 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후원하는 문화제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33]

원자력을 대상으로 한 영화를 소재로 한 연구 성과도 있다. 츠치야 유카는 1955년 도쿄의 미국공보원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10주년을 기념하며 〈원자력의 축복(Blessing of Atomic Energy)〉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농업, 의학, 위생학 등의 평화적인 목적을 위해 제공한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법을 소개했다고 했다. 원자폭탄이라는 외상적 경험 후 10년이 지난 뒤, 원자력의 '평화적'사용의 '축복'을 즐기는 일본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전세계에게 보급되었다고 하였다.[34] 김려실은 1950년대 '원자력 평화이용(Atoms for Peace)' 캠페인의 진행을 주한미국공보원 영화공보를 통해 조명했다. 원자력 평화이용 캠페인을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 경쟁 속에서 검토하고, 주한미국공보원이 원자력 평화이용 캠페인에 사용한 영화를 분석함으로 한국에서의 원자력 평화이용 캠페인이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된 1956년과 연구원 원자로가 도입된 1960년을 전후해서 단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었다.[35]

---

32) 김은영, 『한국영화의 문화냉전 편입과정(1945-1968)』,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6, 289-290면.
33) 김려실, 「1950, 60년대 주한미공보원(USIS) 영화의 '아시아 문화' 표상에 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4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239-240·259면.
34) Tsuchiya Yuka, 「The Atoms for Peace USIS Films: Spreading the Gospel of the "Blessing" of Atomic Energy in the Early Cold War Er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9 No.2.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2014, 135면.
35) 김려실, 「'원자력 평화이용' 캠페인과 주한미공보원(USIS)의 영화공보」, 『비교한국학』 26-2,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공보활동 중 영화연구는 전시연구에 주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공보영화 등에 포함된 내용들과 전시내용의 유사성이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미국국민, 과학기술로 근대화된 미국,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 미국인, 재건 과정에서의 친구라는 미국인의 이미지 등은 다양한 전시에서도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영화들이 미국의 이상적인 삶을 보여주고 한국인들이 이국적인 타자를 보고 즐기게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공보의 목적에 맞추어 제작되고 송출되는 영화 내용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전시에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리버티 뉴스〉 등의 사례, 한국정부와 미국 공보원의 관계가 항상 원활하지는 않다는 정치적인 갈등관계 연구에서 영화, 뉴스, 시각매체 등과 관련된 정치, 사회적 상황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일반적인 활동과 영화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지만, 미국공보원의 진행하거나 후원했던 1950-60년대의 다양한 전시활동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1950-60년대의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에 관한 내용은 당시의 신문 등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며,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상황을 본국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 이를 상세히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1955년부터 1967년까지의 외국에서의 전시에 관한 기록이다.[36] 이 논문에서는 1950-60년대의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다양한 전시활동을 당시의 신문자료와 미국공보원 보고문서 등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휴전이후 1950년대까지의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 1960년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 1950-60년대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 전시의 영향으로 나누어 이를 검토하겠다.

국제비교한국학회, 2018, 321-322면.

36)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2. 휴전이후 1950년대까지의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

휴전이후 1950년대까지와 1960년대 이후로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전시를 나누어서 검토하고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한국에서의 공보 활동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미국이 한국에서 추진한 근대화 프로젝트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었고,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추구했기 때문이다.[37] 아울러 미국공보원의 활동을 이승만 정부는 잠재적 위협으로 파악했으며 진심으로 협력하는 데는 무관심한 입장이었고,[38] 미국공보원은 이승만 행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1960년을 전후하여 미국과 한국에서는 행정부가 교체되기 때문이다.[39] 1960년에 한국은 4・19혁명을 통해 제2공화국 그리고 이후 박정희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1961년에 미국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케네디 행정부로 교체되었다. 한국의 제2공화국, 제3공화국 행정부와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그 이전의 행정부와 정치, 외교 등의 면에서 이전 행정부와는 다른 대외정책을 추진했다. 케네디 행정부는 한국정부가 효과적으로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게 조력하고자 한 측면도 있다.[40] 셋째, 영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공보원의 한국에서의 활동에서도 1950년대와 1960년대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려실에 따르면 1950년대에 아시아 문화를 지원하는 문화 선진국으로서 미국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던 미국공보원의 영화는 196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의 개입을 불가시화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고 정리하였다.[41]

1953년에는 8월 15일 경축기념 재경 보도인 사진전람회를 미국 공보원에서 개최하였고,[42] 9월에는 해병대에서 전투기록 사진 및 미술작품 노획품 등을 전시했으며,[43] 11월에는 국군 제2사단에서 전투사진 전시회를,[44] 12월에는

37) 허은, 앞의 글, 2008, 197-198면.
38) 김한상, 앞의 글, 2012, 254면.
39) 김한상, 앞의 글, 2013, 170면.
40) 김준형, 앞의 책, 2021, 93면.
41) 김려실, 앞의 글, 2013, 259면.
42)「在京 報道人 寫眞展 開幕」,『조선일보』1953.8.11., 2면.

국군 보병 제1사단에서 3년간의 전투기록 사진 전시회를 개최했다.[45] 휴전 후, 사진전을 중심으로 전쟁의 상황을 알리는 전시가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에서 개최된 것을 볼 수 있다. 1954년 2월에는 미국공보원 화랑에서 김환기의 개인 미술전람회가 열렸고,[46] 4월에는 대한사진예술연구회의 작품전시회가,[47] 9월에는 연희대학에서 수집한 한국고대인쇄물과 서적 전시가 열렸다.[48] 11월에는 제1회 한미 어린이 도서전람회가 미국교육사절단, 국립도서관, 중앙교육연구소 공동주최와 문교부, 서울시교육국, 미국공보원의 공동 후원으로 미국공보원 영화실에서 개최되었고,[49] 대한사진예술연구소의 경복궁 사진촬영대회 입상 작품전시회가 열렸다.[50] 12월에는 제2군 창설 1주년을 맞아 제1군 관구사령부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51]

1956년부터는 미국공보원 전시 내용에서의 변화가 보인다. 장소를 대여하거나 후원을 하는 전시뿐만 아니라 미국의 문화, 과학을 소개하는 전시를 개최하였다. 먼저 장소를 대여하거나 후원하는 전시로 4월의 홍사영 사진전람회를 대구 미국공보원에서 열렸고,[52] 6월에 국립박물관이 주관하는 [수정조각전]을 후원했다.[53] 11월에는 부산 모자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자원에서 만들어진 각종 의류 및 공예품 전시회를 부산 미국공보원 강당에서 진행하였고,[54] 12월에 [한국가족사진전]을 개최한다. [한국가족사진전]은 한국 주재 군인 중 작가가 본 한국의 생활과 우리나라 작가가 본 한국생활을 그린 작품으로 미군 작품 32점과 한국인 작품 45점으로 구성되었다.[55]

---

43)「海兵隊에서 서울 奪還 寫眞展」,『조선일보』1953.9.25., 2면.
44)「第二師團에서 戰鬪寫眞展示會」,『조선일보』1953.11.15., 2면.
45)「記錄寫眞 展示會 一師團에서 開催」,『경향신문』1953.12.21., 2면.
46)「金煥基氏 美術展 美公報院서 開催」,『동아일보』1954.2.4., 2면.
47)「寫眞作品 發表會」,『경향신문』1954.4.13., 2면.
48)「李朝時의 印刷物등 美國公報院서 展示」,『경향신문』1954.9.7., 2면.
49)「韓美兒童圖書展覽 14日 美公報院에서」,『경향신문』1954.11.13., 2면.
50)「德壽宮 寫眞撮影 美公報院서 展示」,『경향신문』1954.11.20., 2면.
51)「寫眞展示會를 開催 第一軍管區司令部」,『경향신문』1955.12.13., 3면.
52)「洪思永寫眞展 開催」,『동아일보』1956.4.19., 4면.
53)「水晶彫刻展 開催」,『조선일보』1956.6.16., 4면.
54)「母子院에서 만든 各種衣類等 展示」,『조선일보』1956.11.16., 2면.
55)「韓國家族寫眞展覽會 盛況」,『조선일보』1956.12.26., 4면.

미국의 문화, 과학 등을 소개하는 전시가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다. 1956년 1월 대구 미국공보원에서는 [미국의 음악]이라는 화보 특별전을 개최하였고,[56] 9월에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회]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4개 도시에서 개최했다.[57] 문교부와 미국공보원 공동주최인 이 전시회에는 원자력 평화이용에 대한 일반상식적인 지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전시내용으로는 원자로, 치료기 모형과 평화를 위한 원자력, 원자력이란 무엇인가, 우라늄과 토륨 등 10개 항목의 그림 설명 등이 있었다.[58]

1956년부터는 신문자료 이외에도 미국공보원 보고문서가 있기에 보다 다양한 전시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59] 9월에 열린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는 미국공보원 문화원에서 열렸는데,[60] 학생과 일반인의 전시에 대한 평가 내용이 보인다. 이 전시를 본 학생 중 하나는"원자력은 모든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위대한 약속인 것을 이 전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고, 한 관람자는 "미국의 원자력 전문가와 과학자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61] 1957년에 있었던 [국제그래픽아트협회 판화 전시] 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었다. "미국인들의 그래픽 아트에 대한 새로운 탐구는 그래픽 아트를 아직 잘 모르는 한국인 예술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 다른 평가는"의미 있는 내용이 없고, 논리적인 자극이 되지 않는다"라는 평가도 있었다.[62] 1957년 1월에는 [재건] 전시가 개최되기도 했다.[63] 1957년에 4월에는 서울 경복궁 미술관에서 [인간가족전]이 개최되었는데, 이는

56)「音樂畫報 展示 大邱公報院서」,『동아일보』1956.1.24., 4면.
57)「李大統領도 參觀」,『경향신문』1956.9.18., 3면.
58)「原子力展示會 오늘부터 德壽宮서」,『동아일보』1956.9.17., 3면.
59)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에서 본국으로 보냈던 문서에서의 전시내용은 [부록]에서 '1950-60년대 미국공보원 관련 전시목록'으로 정리하였고, 본문에는 간략한 내용만을 포함하였다. 각 연도별 전시에서의 미국공보원 문서에 나타난 전시들은 서지사항에서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을 제외하고 문서의 제목만을 각주로 표기하였다.
60)「Exhibition Assessment」
61)「Stimulating Interest in Exhibits」
62)「Exhibition of Prints Donated by International Graphic Art Society」
63)「Reconstruction Exhibition Opening」

미국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처음 공개된 것이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미국공보원을 통해 한국에서 전시하게 되었다.[64] 이 전시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사 월터(Walter Dowling) 미국 대사와 함께 관람하였는데, 미국 사진작가 스테인첸(Edward Steichen)의 작품이었다.[65] 이 전시는 인간의 존엄성을 충분히 재현했다고 평가되었다.[66] 9월에는 제3회 과학전람회가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최되었고, 미국공보원은 찬조품을 출품했다.[67]

1958년 6월에는 [미국의 인상] 전시와,[68] [이것이 미국의 국토다] 전시가[69] 열렸다. 7월에는 [한국미술가가 본 세계] 전시가 미국공보원 문화관에서 열렸는데, 이는 한국의 주요 미술가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의 감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었다.[70] 9월에는 [노동의 날] 전시를 서울 시청 앞 광장과 부산, 대구, 광주 지부에서 열었으며,[71] 10월에는 [건축사진 전시회]와 [색채 복사화를 통한 20세기 미국회화] 전시를 미국공보원 문화관에서 열었다.[72] 11월에는 석유를 찾는 음향장비 등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유에서의 이미지] 전시를 열기도 했다. 이 전시는 서울, 광주, 대구에서 열렸고 65,000명 정도가 관람하였다.[73] 12월에는 [노벨상] 전시회를 열었다.[74] 〈사진 1〉부터 〈사진 3-2〉, 〈그림 1〉은 1958년도에 있었던 주요 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

64) 「Exhibition Assessment」
65) RG 306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Exhibition-Korea.
66) 「Stimulating Interest in Exhibits」
67) 「四百三種 二千餘點을 出品 三回科學展覽會開場 오늘부터」, 『동아일보』 1957.9.18., 3면.
68) 「Photo Exhibit : Image of America(Project G-1040)」
69) 「Report of ICS Exhibit : "This is the American Earth"」
70) 「USIS-Seoul Exhibit : Korean Artists Look at the World」; 미국공보원, 『한국미술가가 본 세계』 팜플릿, 1958.
71) 「Labor Day and USIS Photo Exhibits Draw Crowds in Seoul」
72) 「二十世紀 美國 現代繪畫展」, 『경향신문』 1958.10.24., 4면.
73) 「Agency Exhibit : Images in Oil」(정확한 전시회 일정은 없었지만, 문서 작성이 12월 12일이므로 11월 경에 개최했던 전시라고 생각된다.)
74) 「Novel Prize Exhibit at USIS Center Among Top Seoul Attraction」



〈사진 1〉 [한국 미술가가 본 세계][75]



〈그림 1〉 한국 미술가가 본 세계 팜플렛(앞면)





〈사진 2-1, 2〉 [노동의 날] 전시 전경, 전시세부





〈사진 3-1, 2〉 [노벨상] 전시 준비, 전시 공간

1959년 1월에는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 전시를 진행했는데 지구물리학 관련 125장의 사진 복사본이 각 대학과 문화원에 송부되었다.[76] [라이프 사진전]도 열렸는데, 5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다.[77] 2월에는 [링컨 대통령의

75)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이후의 사진 및 그림 출처 같음.

76)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Exhibit Distribution Throughout the Republic of Korea」

일생과 기록]을 전시하였고,[78] 6월에는 아시아 작가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1954년에 수채화로 그린 [미국의 인상] 전시가 열렸다.[79] 8월에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원조 경제활동을 다룬 [발전] 전시가 있었다. 이 전시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경제 원조활동에 대한 전시였다. 한국경제의 다양한 영역들의—농업, 산업, 공공활동, 통신 등—내용이 그래픽 패널 등으로 전시되었다.[80] 9월에는 [화폐] 전시,[81] 미국에 유학 중인 31개국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출품한 사진으로 이루어진 [나의 미국인상] 사진전을 개최했다.[82] 12월에는 [미국의 협동조합] 전시가 있었고, 이 전시는 광주, 대구, 부산 등에 순회전시 되었고,[83] [인권] 전시는 지역의 문화원에서도 화보로 전시되었다.[84] 12월에는 뉴욕현대미술관의 국제순회전시 계획에 따라 미국현대판화 25점이 미공보원 문화관에서 전시되었다.[85] 1950년대의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는 차재영과 염찬희의 공보영화를 분석한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미국 국민, 근대화된 과학기술 국가, 교양 있는 개척자, 재건을 지원하는 친구 등의 이미지를 영화에서 강조한 것처럼[86] 전시에도 민주주의, 과학기술, 교양, 재건 등의 미국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강조하려 하였다.

3. 1960년대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

1960년대부터는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내용이 다양화된다. 1960년 1월에는 미국공보원 문화관에서 우주 비행선, 로켓 사진을 중심으로 한 [파이오니아 인공위성] 전시가 열렸다. [파이오니아 인공위성]

77) 「Life Photo Exhibit is Major Cultural Event of Seoul Winter Season」
78) 「린컨의 記錄을 展示」, 『조선일보』 1959.2.10., 3면.
79) 「Asian Artist's Impressions of American Open Renovated USIS Exhibit Hall」
80) 「Aid Program Activities Covered in Usis-Korea Exhibit」
81) 「Coin Exhibit」
82) 「나의 美國人像展 美國公報院에서 開催」, 『동아일보』 1959.9.4., 4면.
83) 「Exhibit: Cooperatives in U. S.—ICS/E Project E-186」; 「'Cooperatives in America' Exhibit Tied in with Display by Korean Cooperative Movement」
84) 「Human Rights Exhibit」
85) 「美國現代版畫展」, 『동아일보』 1959.12.22., 4면.
86) 차재영・염찬희, 앞의 글, 2012, 235면.

전시는 서울에서만 16만 명이 관람했는데, 2주간 관람을 연장하여 4주간으로 하였다. 로켓의 조립과 분리는 한국공군이 협력했는데, 한국공군은 이 로켓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녹음해 주기도 하였다. 한국어 설명은 현장에서 녹음기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다.[87] 5만 명의 북한과 중국의 포로들이 자유를 선택한 날을 기념하는 [자유의 날] 전시가 열렸는데 이 전시는 타이페이(臺北)와 판문점에서도 함께 열렸다.[88] 4월에는 서독의 경제재건, 소련의 영향 아래 있는 동독의 사진을 전시하는 [분단된 독일 : 자유에 대한 시험]이 미국공보원 문화관에서 개최되었다.[89] 5월에는 [동서 위인의 말] 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수채화와 사진으로 꾸며진 이 전시물은 서울에서 전시된 다음 광주 등의 미국공보원에 전시되고, 복제본은 전국의 중고등 교육기관에 기증될 예정이었다.[90]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 전시도 개최되었는데, 이 전시는 1960년 초에 개최하려하다 3·15부정선거로 인한 한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연기된 것이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을 다양한 명언들을 2개 국어로 표현한 전시였는데, 학생들과 기자들은 주한미국공보원 사무실로 찾아와서 전시 개최를 축하하며 인류의 위대한 명언들을 간추린 것에 대한 동의하였다.[91] 6월에는 22일의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정치가, 군인, 시민, 아이젠하워] 사진전을 열었다.[92] 9월에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를 덕수궁 함녕전에서 열었다. 이 전시는 3부로 이루어졌는데, 제1부는 나라 안의 것으로 원자력연구소의 원자로 모형을 비롯한 10여 종의 원자력 발전 모형이 전시되어 있고, 제2부는 외국의 것으로 주로 미국이 출품한 13가지 모형과 50점의 화면 모형으로 되어 있었으며, 제3부는 사진부로 원자력원의 기구를 도표를 비롯한 9종의 도표와 영국 등의 원자력 사업 활동 등이었다.[93]

9월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여 [미국의 선거] 전시가 있었는데,

---

87) 「Pioneer Rocket Draws More than 160,000 in Seoul Showing」
88) 「"Freedom Day" Exhibit at USIS Seoul Information Center」
89) 「Divided Germany Exhibit Draws Parallel with Korea」
90) 「偉人의 말 展示會」, 『조선일보』 1960.5.4., 3면.
91) 「"Great Ideas of Mankind" Exhibit Captures Audience Imagination」
92) 「아이젠하워 寫眞展 美公報院에서 開催」, 『경향신문』 1960.6.11., 3면.
93) 「Four Successful Large-Scale Exhibits in Seoul」; 「Exhibit Evaluation Report」

이 전시에는 선거 절차에 대한 화보 이외에도 미국 선거의 홍보물, 전자게시판, 투표 부스 등이 있었다.[94] [미국의 선거] 전시에 대한 평가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승만 정권 퇴진 시위를 이끌었던 많은 대학생들이 이 전시를 보러 와서 미국과 미국의 선거 절차에 대해 질문했다.”는 내용인데 이는 대학생들이 4·19혁명 직후에 미국과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평가로 보인다.[95] 10월에는 유엔 회원국의 성장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전시한 [유엔, 99개의 강력한 국가] 전시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했으며, 11월에는 경복궁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제6회 과학전람회에 인공위성 탐사체, 우주권 비행모형(X-15) 등을 협찬하였다.[96] 1960년에 주한미국공보원이 주최하거나 후원했던 4개의 대형 전시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미국의 선거], [UN, 99개의 강력한 국가], [과학전람회]이었다. 이 중에서 [미국의 선거]는 4.19혁명 직후에 진행된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대해 학생들은 시위를 하고 정부를 무너뜨렸는데 선거제도에 대한 혼란에 대해 가장 가능성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선거제도라고 인식하게 하였다. 전시된 것들 중에는 자동투표기, 투명 기표함 등이 있었다.[97] 〈사진 4-1〉부터 〈사진 5-4〉는 1960년도에 있었던 주요 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4-1, 2〉 [유엔, 99개의 강력한 국가] 전시 전경 및 전시 세부

94) 「Four Successful Large-Scale Exhibits in Seoul」; 「Exhibit Evaluation Report」
95) 「Exhibit Evaluation Report」
96) 「Four Successful Large-Scale Exhibits in Seoul」; 「UN-99 Nations Strong—USIS /Seoul Exhibit in City Hall Plaza Oct. 20-30」
97) 「Four Successful Large-Scale Exhibits in Seoul」





〈사진 5-1, 2〉 제6회 과학전람회 (입구: 경복궁 신무문), (전람회장: 국립미술관)




〈사진 5-3, 4〉 제6회 과학전람회 전시 공간

1961년 6월에는 미국 최초의 인간 우주비행 계획 전시 등을 다루는 [우주비행사의 개척] 전시가 미국 공보원 문화관 열렸다.[98] 이 전시를 진행하면서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우주비행사에 대한 홍보 내용을 주한미국공보원의 주간뉴스리뷰(Weekly News Review)를 통해 한국의 주요인사 7,500명에게 배포했는데 이는 실제의 우주 비행이 있기 며칠 전이었다. 전시도 우주비행이 있기 며칠 전(서울 등) 또는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부산, 광주, 대구). 공보원 도서관에서 있었던 이 전시는 매일 수천 명이 관람하였고, 공보원 앞에 세워진 우주비행 관련 전시내용도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였다.[99]

8월에는 [베를린: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 전시가 국립중앙공보원에서 열렸다.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는 베를린과 한국이 같은 상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자유진영 국민으로서의 한국인에 대한 공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 전시를 계획하였다. 베를린 전시를 진행할 동안 베를린에서의 미소간의 갈등이

98) 「Astronaut Exploitation: New USIS/Seoul Exhibit Cases in City Hall Plaza」
99) 「Astronaut Exploitation: New USIS/Seoul Exhibit Cases in City Hall Plaza」

깊어짐에 따라 전시의 기간을 1주에서 다른 전시일정을 조정하여 2주간으로 늘렸다. 실제로 베를린의 위기에 대응하여 주한미국공보원은 언론, 출판, 영화, 라디오 등 전 방면에서 공보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약 2주간 진행한 전시와 영화 상영에서 서울은 32,700명(전시), 10,000명(영화)이 참여했고, 부산은 8,685명(전시), 3,850명(영화)이 참여하였다. 상업영화관에서의 베를린의 위기 영화 상영에는 273,845명이 관람하였다. 전시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패널 설명이 있다.[100]

> 베르린을 强占하겟다는 후루시쵸프의 위협에 대응하여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핵군사력 및 재래식 군사력의 증강을 명령하였다. 미 상원은 그에게 병력을 증강시키고 무기를 구입할 권한을 주무로써 동 제안에 동의하였다. 신권한에 따라 동 대통령은 미국의 병력을 273만 5천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국방예산을 460억불에서 490억불로 증가시킬 것이다.[101]

베를린에서의 위기와 이에 대한 대응을 전시 패널에서 직접적으로 서술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전시와 관련된 한국의 학생들인 베를린 전시를 관람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는 많은 수의 학생들이 동시에 줄을 서서 관람하는 것이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10월에는 대구 미공보원에서 재직 중인 이홍식 씨의 칼라 사진전이 12일부터 18일까지 중앙공보원에서 열렸는데, 이 작품은 작가가 미국 여행 중에 미국인 예술가의 모습을 담은 것이었다.[102] 1961년 12월에는 화신백화점에서 [반공전시회]를 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목적, 위장과 기만 등을 주제로 한 전시였다.[103] 12월에는 [미국에서의 외국 투자]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였다.[104] 1961년에는 이외에도 [뉴스맨이 말하다 : 기자들의 작품], [파이오니아 5호 위성], [백악관의 여주인] 전시가 있었다.[105] 1961년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100) 「Berlin Exhibit」
101) 「Berlin Exhibit」
102) 「李洪植 칼라 寫眞展」, 『경향신문』 1961.10.14., 4면.
103)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1—Special Report」
104)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1—Special Report」
105)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1—Special Report」

79개의 전시를 서울과 지방의 공보원에서 진행했고, 3백 5십 만 명 정도가 관람하였다.[106] 〈사진 6-1〉부터 〈사진 9〉는 1961년도에 있었던 주요 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사진 6-1, 2〉 [우주비행사의 개척]



〈사진 7〉 [베를린: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



〈사진 8-1〉 [반공전시회] 입구


〈사진 8-2〉 [반공전시회] 전시 공간

106)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1—Speci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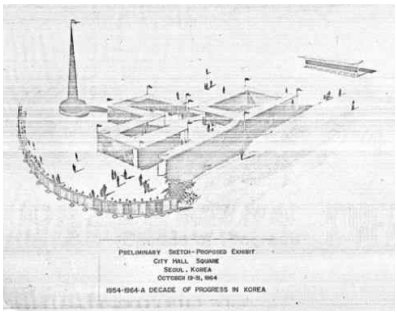
〈사진 9〉 [뉴스맨이 말하다: 기자들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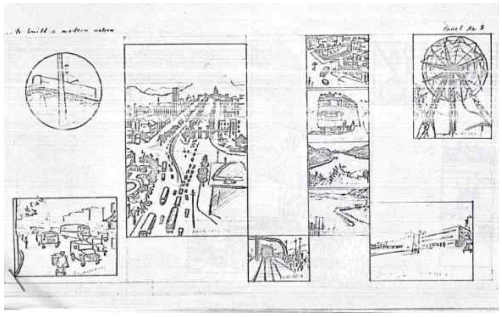
1962년에는 4-5월 경복궁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도 미국공보원은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원자력에 의한 각종 현대무기, 인공위성 모형 중심의 출품이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6·25전쟁 당시의 전투업적, 미국 고유 문화와 생활풍속, 역사적인 전시물, 미국의 특산물과 대표적인 생산품, 사업 경제면의 제반 자료, 국기, 군인의복, 계급장, 화폐, 우표, 원자과학, 현대무기, 신형항공기, 인공위성 모형, 각종 사진 전시 등이었다.[107] 산업박람회 미국 전시관에는 백오십만 명이 방문하였는데,[108] 이는 미국의 산업발전에 대한 관심의 표현한 것이다. 8월에는 미국의 실업교육의 제도를 전시하는 [미국인의 생활교육] 전시를 한양공업고등학교에서 열었고,[109] 우주 강연 시연도구를 미국공보원 문화원에서 전시했다.[110] 1962년에 있었던 전시로 시민회관 앞의 존 글랜(John Glenn)의 [우주 캡슐(Space Capsule)] 전시, [중국으로부터의 탈출] 전시도 있었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1962년에 총31개의 전시를 진행했고, 복사본이 지역으로 전달되었다. 서울에서만 1,887,700명이 미국공보원 전시를 관람했다. 또한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17개의 사진 화보(Photo Packet)를 만들어 60개의 문화원에 보급하였으며, 미국대외원조처(USOM :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의 주택전시도 보조했다.[111] [우주 캡슐] 전시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위상규 교수가

107)「美國서도 많이 出品」,『조선일보』1962.1.14., 3면.
108)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2—Special Report(accompanying annual statistical reports)」
109)「美國實業教育 6日부터 圖表展示」,『경향신문』1962.8.10., 4면.
110)「Exhibit, "Space Lecture Demonstration Kit"」

협조했는데, 위 교수는 한국 우주과학클럽 학생 20명을 교육시켜서 약 10만 명에게 우주캡슐 해설을 하게 하였다. 캡슐 입구 부분에서 자동으로 들리게 하는 3분 30초의 녹음을 만들었고, 다양한 한국어 번역을 진행했다.[112] [우주 캡슐] 전시는 관람객이 많아서 관람통로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정도였다.[113]

1963년에는 1월에는 자유월남의 현황을 알리는 사진전시회가 신문회관에서 열렸고, 미국공보원과 주한월남대사관 및 신문회관이 공동 주최하였다.[114] 아울러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에서 직접 제작한 [베트남에서의 게릴라전]이라는 전시가 있었는데, 65,000명이 관람하였고, 국군과 지역의 문화원에서의 전시요청에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115] 1965년 6월에는 1955년부터 1965년까지의 [10년간의 한국 발전상] 전시가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렸는데, 미국의 원조를 중심으로 통계적 자료, 역사적 정보, 경제적 사실 등을 7가지 주요 영역에서 조망할 수 있게 했다. 광장 전체를 활용한 전시로 기념탑이 있고, 사진, 화보, 그림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116] 〈그림 2-1〉과 〈그림 2-2〉는 [10년간의 한국 발전상] 전시기획 관련 자료이다.





〈그림 2-1, 2-2〉 [10년간의 한국 발전상] 전시기획안(표지) 및 내지(일부)

111)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2—Special Report (accompanying annual statistical reports)」

112)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Presentation of Space Library」, 1962.8.8.(이 때 위상규 교수는 학교에서 필요한 우주관련 서적 기증을 요청한다.)

113)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2—Special Report」

114) 「自由越南 寫眞展」, 『조선일보』 1963.1.19., 7면.

115) 「Assessment Report—Korea 1963」

116) 「Exhibit: A Decade of Korean Progress」; 「Preliminary Sketch—Proposed Exhibit City Hall Square Seoul, Kora, 1954-1964 A decade of progress in Korea」

1966년 3월에는 [미국현대판화전]이 미국공보원의 주최로 신문회관 화랑에서 열렸다. 미국의 예술가들의 동시대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 예술계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인쇄 과정 시연도 있었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서울에서 예술가들의 활동이 활발하며 개인 예술가들의 작은 전시들이 거의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시에 참여한 미국 예술가들은 1920년대에 출생하여 현재 40대 정도이며, 이들의 작품에서는 미국의 삶의 양식, 그 체제를 볼 수 있었다.[117] 9월에는 쌍둥이 우주선 [제미니 실물 모형 전시] 가 시민회관 앞에서 있었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이후의 전시에서 더 자세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관람객에게 더 교육적이고, 심리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우주선이 발사되어 우주정거장에서 도킹(docking)하고 다시 귀환하는 것을 움직이는 모형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미국의 우주개발계획에 대한 전시도 제안한다. 관람자들은 우주선을 단지 영화와 사진에서만 보았는데 실물 크기의 우주선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서 생각했던 것 보다 크다는 것에 놀랐고, 상당한 수의 운전 스위치와 게이지들이 조종실에 수직으로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118] 〈사진 10-1〉, 〈사진 10-2〉는 [미국현대판화전] 개막식과 강연회 모습이고, 〈사진 11-1, 2〉, 〈그림 3〉은 미국의 우주개발 관련 전시 자료이다.



〈사진 10-1, 2〉 [미국현대판화전] 개막식 및 강연회 (광주 조선대학교)[119]

117)「美國現代版畫展 新聞會館 畫廊서」,『동아일보』1966.3.22., 5면;「American Prints Today」
118)「韓國에 온 제미니 11號 模型」,『매일경제』1966.9.29., 2면;「Gemini Model Exhibit」;「韓國에서 보는 제미니 宇宙船」,『조선일보』1966.9.24., 4면.
119) 〈사진 10-1〉에서 테이프 컷팅을 하는 사람은 한국미술연합회 도상봉 회장과 브라운




〈사진 11-1, 2〉 제미니 실물모형 전시



〈그림 3〉『미국의 유인 우주계획』 팜플렛(전면)[120]

1967년 5월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방송을 중계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실물과 같은 크기의 신콤(Syncom) 통신위성 모형이 미국공보원 서울 문화원에서 전시되었고,[121] 1968년 11월에는 제12회 한국도서전시회에 미국공보원은 도서수집품을 전시했다.[122] 1969년 8월에는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기념하기 위해 [달 착륙 실황사진 및 모형 전시회]를 미국공보원의 주최로 덕수궁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열렸다.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아폴로 11호의 모형은 서울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을지로 중심가 퍼레이드를 하였고,[123] 전시에서는 지구를 출발 달에 도착한 후 귀환까지의 전 과정을 모형과 사진 및 도표로 상세히 보여주었다. 우주인이 캡슐 안에서 먹은 것과 같은 오렌지 음료, 초콜릿, 푸딩, 치즈 등의 우주식량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사진 60점은 암스트롱(Neil Alden Armstrong)이 달 착륙 후 찍은 10여점의 달 표면 사진을 비롯한 각종 천연색 및 흑백의 대형 사진을 출발에서 귀환까지를 보여 주었다. 전시장에서는 아폴로 11호가 달에서 찍은 필름 등 미공개 기록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다.[124]

(Windrop G. Brown) 미국 대사이며(「American Prints Today」), 〈사진 10-2〉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은 미국공보원 서울지부에 근무하는 배정국이다.

120) 〈사진 11-1〉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사람(중간)은 김현옥 서울시장이다 (「Gemini Model Exhibit」).

121) 「通信衛星 신콤 模型 展示 8日부터 美公報院」, 『매일경제』 1967.5.6., 2면.

122) 「美公報院서도 出品 出版協會 圖書展示에」, 『매일경제』 1968.11.4., 3면.

123) 「아폴로 11號 模型 入京」, 『조선일보』 1969.8.6., 3면.

124) 「아폴로 달 着陸 模型 展示會」, 『조선일보』 1969.8.19., 7면.

4. 1950-60년대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 전시의 영향

1)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계획, 전시 규모

1950년대 중반부터의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전시는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유지에 중심이 있었다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냉전체제에서의 소련과의 체제경쟁의 가속화, 한국의 자립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미국공보원은 보다 체계적 공보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미국공보처의 한국에서의 공보활동 전반에 대한 총괄적 계획은 1960년부터 입안된 것으로 보인다. 1960년「한국국가계획」에서의 공보활동의 목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 관념과 관행의 효율적 적용에 기여하는 것, 한국과 관련된 미국 정책의 견실함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목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 개인의 자유와 국가독립에 대한 한국인의 열망이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반공을 장려하는 것 등이었다.[125] 1966년 「한국국가계획」을 보면, 미국공보처는 한국에서의 공보의 목적을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장, 외부적 방어(국방), 국내적 안보, 사회 변혁(Social Evolution), 통일을 향한 진전, 국제적인 지원, 한국과 미국의 효율적 협력으로 정했다. 직접적인 공보의 대상은 대학교수, 교육 연구 전문가 등 500명, 미디어 담당자 1,000명, 정부부처 요인들 500명, 공공·문화 지도자 500명, 국회와 정치권 500명, 중고등학교 교사와 행정가 5,000명 등이었다. 외부적 방어(국방)를 위해서 「반공전시」의 개최, 국내적 안보를 위해 「응용과학 전시」와 「원조 프로그램 전시」 등을 계획하였다.[126]

이러한 계획 아래서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공보로서의 전시활동을 수행해 나간다. 〈표 1〉을 보면 1961년 미국공보원이 한국문화원에 전시 화보 묶음과 사진 자료를 보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에서 다양한 전시를 직접 진행한 것도 있지만, 한국문화원을 통해 다양한 화보전시와 사진전시를 하는 것도 알 수 있다.

---

125) 정일준, 앞의 글, 2003, 30-31면 재인용.
126)「Country Plan for Korea」

〈표 1〉 미국공보원이 1961년에 한국 문화원에 보낸 전시 화보 묶음(Packet)과 사진 자료[127]

날짜	주제	문화원 수
1.25.	미국 원조 사진 묶음	20
1.20.	1) 미국 원조 사진 묶음 2) 케네디 대통령의 칼라 초상화들	20
2.21.	국토건설단(National Construction Service) - 한국의 재건단	20
4.18.	Walter P. McConaughy 대사의 제주도 방문	21
4.21.	미국 원조 사진 묶음	21
4.24.	사진으로 본 국토건설단	21
4.27.	4·19혁명 기념	21
5.15.	Mercury호의 우주 비행	23
5.15.	미국 원조 사진 묶음	23
5.19.	Mercury호 우주비행사 - Alan Shepard	23
6.2.	미국 원조 사진 묶음	23
6.9.	14개 나라의 대표가 지역 사회 개발 위해 서울에서 회합을 가지다	23
7.5.	새로운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	23
7.5.	한국에 새로 부임한 대사 - 사진으로 본 Berger 대사	23
7.5.	케네디 대통령	23
7.5.	1) 고층건물 고정하기(Anchoring a Skyscraper) 2) 미국 영부인 : Mrs 케네디	23
9.14.	베를린 : 소련이 만든 위기	25
9.22.	한국으로 귀순한 공산주의 중국의 조종사들	27
10.27.	최신 베를린 뉴스 (수치의 벽)	27
11.8.	미국 국무장관 Rusk의 한국 방문	27
11.22.	박정희 의장의 미국 방문 - 국가재건최고희의 의장의 전국 투어	27
12.8.	미국의 크리스마스	27
12.12.	한국에서의 Fulbright의 강연들	27
총합	25묶음이 538개의 문화원에서 전시됨	

총 25개 전시 화보 묶음이 538개(누계)의 문화원에 보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원은 미국공보원이 진행했던 전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주요 장소로

127)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List of Exhibits Packets and Photo Material Sent to Korean Cultural Centers by USIS/Seoul During 1961.

활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1964년의 미국 공보원 자료를 보면 1960년대 미국 공보원이 진행했던 전시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표 2〉는 미국 공보처가 제작한 전시이고, 〈표 3〉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에서 제작한 전시이다.

〈표 2〉 1964년에 미국공보원이 진행한 전시(미국공보처 제작)[128]

번호	전시명	개최지	언어	예측 관람자	유용성
63-201	U.S. Progress in Space Science (우주과학에서의 미국의 발전)	5	한국어	28,140	적절
63-202	Great Invention that Change the World (세계를 바꾼 위대한 발명)	5	한국어	12,630	탁월
63-216	Studying Art—Painting, Sculpture & the Graphic Art (예술 연구—회화, 조각 그리고 그래픽 아트)	2	한국어	52,600	적절
63-223	Economic Progress Through U.S. Assistance (미국의 도움을 통한 경제 발전)	3	한국어	32,800	적절
64-023	U. S. Successes in Space (우주에서의 미국의 성공)	2	한국어	4,500	적절
64-306	Education in U. S. : Studying Science (미국의 교육 : 과학 연구)	2	한국어	5,000	탁월
64-348	Bringing the Moon Closer (달을 더 가까이)	2	한국어	3,500	탁월
64-349	Presidential Candidates go to the People (대통령 후보가 국민에게 다가가기)	1	한국어	1,500	적절
64-017	Enlarging the Meaning of Freedom (자유의 의미 확대해 보기)	4	한국어	9,000	적절
합계				140,670	

미국 공보처는 〈표 2〉와 같이 1964년에 진행할 해외에서의 전시 주제와 내용을 정하고 이를 제작한 후 이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여 해당 국가에서 전시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일부 전시는 〈표 3〉과 같이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에서 직접 제작하여 미국공보원센터, 지역문화원, 대학, 학교 등에서 진행하게 하였다.

128)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U. S. Information Report on Exhibits Program/USIS—Kwangju, Korea.

〈표 3〉 1964년에 미국공보원이 진행한 전시(미국공보원 한국지부 제작)[129]

전시명	개최지	언어	예측 관람자	전시기술
U.S. Aids Korea and Korea's Progress (미국의 한국 원조와 한국의 발전)	56	한국어	206,150	화보
Anti-Communism (반공)	17	한국어	27,300	화보
Democracy (민주주의)	16	한국어	62,500	화보 등
Life in the U.S. (미국의 생활)	19	한국어	62,800	화보
Women in the U.S. (미국의 여성)	7	한국어	63,200	화보
Education in the U.S. (미국의 교육)	9	한국어	48,000	화보
American Culture (미국문화)	11	한국어	11,600	화보
U.S. Military (미군)	18	한국어	61,350	화보
Sport in the U.S. (미국의 스포츠)	5	한국어	21,100	화보
Agriculture in the U.S. (미국의 농업)	15	한국어	37,700	화보
U.S. Leaders (미국의 지도자)	16	한국어	111,200	화보
Medicine in the U.S. (미국의 약품)	3	한국어	3,200	화보
Election in the U.S. (미국의 선거)	13	한국어	33,700	화보
US-ROK Goodwill (한미친선)	9	한국어	10,310	화보
Industry in the U.S. (미국의 산업)	5	한국어	6,000	화보
Atomic Science (핵과학)	4	한국어	10,500	화보
Space Science (우주과학)	21	한국어	82,700	화보
Science (과학)	25	한국어	87,800	화보
United Nation (유엔)	3	한국어	2,700	화보 등
Labor in the U.S. (미국의 노동)	3	한국어	10,000	화보
합계			949,810	

* 전시를 개최한 장소는 미국공보원센터(1개처, 53일), 지역 문화원(10개처, 62일), 방적공장(2개처 21일), 한국군집단(3개처 31일), 대학(4개처 27일), 학교(8개처 27일), 지방 정부 기구(9개처 23일)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서울 등의 주요 지역의 공보원에서의 전시(미국공보처 제작 및 한국지부 자체 제작)와 다양한 주제의 사진, 화보를 이용한 문화원에서의 전시를 활발히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61년에 배부한 화보, 사진을 연간 538개의 문화원에서 전시하였고, 1964년 미국공보처

129)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U. S. Information Report on Exhibits Program/USIS—Kwangju, Korea.

제작 전시를 149,670명이 관람하였으며, 한국지부에서 제작한 전시를 959,810명이 관람한 것으로 볼 때 미국공보원 한국지부 전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주요전시 : 냉전과 자유진영, 경제발전, 과학기술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공보활동 중 전시개최는 1950년대보다는 1960년대에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공보원이 장기적인 한국에서의 공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 변화에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정일준의 언급처럼 "전시회를 통해 공보원은 자유진영의 중심인 미국의 문명적 성취가 소련보다 우월함을 보여줌으로써 자유진영의 최전선에 위치한 대중들로부터 미국의 지도적 지위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자 했고"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한국인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자유진영에 동참할 필요성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데 전시회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 수 있다.[130]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의 냉전과 자유진영 관련 전시, 경제발전 전시, 과학기술 전시는 1950-60년대의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국 정부의 상황 등과 연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냉전과 자유진영 관련 전시

냉전과 자유진영 관련 대표적인 전시로는 1961년의 [베를린: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 [반공전시회]를 예로 들 수 있다. 1961년의 [베를린: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 전시 준비를 위해 미국 공보원이 국립공보원과 처음 접촉할 때는 이전에 준비하고 있는 자체 전시와 대여전시가 있었기에 1주일의 전시를 겨우 진행할 계획을 세웠지만, 베를린의 위기가 고조되면서 미국공보원장과 국립공보원장이 협의하여 이미 진행예정 중이던 전시를 취소하면서 전시기간을 2주로 늘리기도 하였다. 전시는 국립공보원에서 일요일에도 관람할 수 있었고, 베를린 관련

130) 정일준, 앞의 글, 2003, 46면.

영화를 하루에 8회씩 상영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가 제작한 베를린 팜플렛 4,100개를 한국 인사, 650개를 대학과 대학교에, 1,472개를 고등학교 도서관에, 670개를 32개 문화원에, 2,500개를 서울에서의 전시회에 3,500개를 부산에서의 전시에서, 500개를 군부대에 등에 전달했다.[131] 미국공보원은 한국의 경우 그 자신의 힘으로는 민족의 분단을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서독과 동독의 비교는 중요한 주제였다. 이 전시에서도 서독의 경제 재건을 동독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여 주었고, 소련 영역이었던 동베를린 지역에 대한 전시 부분에서는 철책과 경고문구 등의 전시연출도 진행했다.[132]

1961년의 [반공전시회]는 미국 공보원이 육군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전시였고, 약 40만 명이 전시를 관람하였다. 화신백화점의 4, 5층을 전시공간으로 사용한 이 전시에는 다양한 공산주의 관련 화보 전시와 북한의 실상 전시, 공산주의 관련 영화 상영 등이 이루어졌다. [반공전시회]의 자세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반공전시회] 전시내용[133]

부	내용	세부내용
1(4층)	7가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목적	a. 프롤레타리아, b. 계급갈등, c. 생산수단의 공동 소유, d. 힘과 폭력에 의한 혁명, e. 프롤레타리아의 독재, f. 공산주의 침투의 확장, g. 국제 공산주의의 본부인 소련
2(4층)	공산주의자의 위장과 기만	a. 레닌의 정책, b. 스탈린의 정책, c. 흐루시초프의의 정책
3(4층)	아시아 대륙의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4(4층)	한국에 대항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책	
5(5층)	공산주의 침략의 방법	a. 불법적인 공격, b. 러시아 점령군에 의한 권력 통제, c. 게릴라 활동과 지원, d. 지역 공산주의자에 의한 방해(Sabotage)와 폭력(Terrorism) 행위
6(5층)	공산주의 독재	a. 숙청의 이유, b. 공산주의자가 삶을 보는 방식, c. 공산주의자 지도자에 대한 진실, d. 강제노동, e. 공산주의자가 허용하는 자유
7(5층)	북한의 실상	a. 1945-1950년의 북한, b. 1950년 6월 25일부터 휴전협정까지의 북한, c. 휴전협정 이후의 북한의 삶
8(5층)	도서관	a. 김일성 정책을 폭로하는 사실들, b. 공산주의 용어 해설, c. 공산주의 서적 전시, d. 질문과 답의 공간(무엇이 공산주의인가?)

131) 「Berlin Exhibit」
132) 「"Divided Germany"Exhibit Draws Parallel with Korea」

9(5층)	베를린 위기의 사진 전시	
10(5층)	방첩	a. 방첩 요원의 선발, b. 훈련방법, c. c침투 방법, d. 요원의 미션, d. 작전방법, e. 기록된 사건, g. w적 요원에 대한 방첩 측정
11(5층)	극장	공산주의 영화

[반공 전시]는 주한미국공보원이 후원했던 전시였는데, 미국의 정책 주제들이 표현되기도 하였다. 반공전시의 경우는 주한미국공보원이 주제, 연구, 사진 등을 제공하고, 미국의 영향 아래서 한국 측이 패널을 만들었다. 케네디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 했던 “exchanging an apple for an orchard”는 “어제 하나를 양보했으니 오늘은 백을 내시오. 그래야만 나는 당신의 친구 노릇을 하겠소”로 번안되어 전시되었다.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but you can do for your country”는 “당신은 반공전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겠는가?”로 번안되었다.[134]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반공이념 주입과 공산주의 이념 확산 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 학교에서의 반공교육교재 개발, 군대에서의 정훈교재 개발,[135] 위와 같은 [반공 전시] 개최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전시와 함께 극장도 운영되어 반공 관련 영화도 상영되어, 전시 내용을 반공영화를 통해 다시금 경험하게 한다.

(2) 경제발전 전시

1962년 미국공보원이 협력한 산업박람회와, [10년간의 한국 발전상] 전시에서 한국의 근대화를 위한 미국공보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1962년 경복궁에서 열린 산업박람회에 미국공보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생산품, 원자과학, 현대무기, 신형항공기, 인공위성 모형 등을 출품하였다.[136] 또한 1965년 [10년간의 한국 발전상] 전시는 미국의 원조를 중심으로 통계적 자료, 역사적 정보, 경제적 사실

133)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1—Special Report, 1962.1.25.
134) 「USIS/Seoul Exhibits Activities During 1961—Special Report」
135) 허은, 앞의 글, 2008, 234면.
136) 「美國서도 많이 出品」,『조선일보』 1962.1.14., 3면.

등을 7가지 주요 영역에서 조망할 수 있게 했다.[137] 앞의 전시기획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공보원 한국 지부는 전시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계획했다. [10년간의 한국 발전상] 전시를 구성함에서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한국인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전시를 계획함에서 많은 내용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이 왜 이 전시를 제공하는가, 이 전시에 대한 언론의 태도, 그리고 자조적 측면이다. 전시를 하면서 수출 증대에 대한 한국인의 새로운 생각들, 한국 제품이 다양성과 양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 부분도 그려낼 수 있는 기술적 측면들, 기술사용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 등을 고려하였다.[138] [10년간의 한국의 발전상] 전시에서는 미국과 다른 국가의 원조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서울, 대구, 부산에서 이루어진 전시는 60만 명 정도가 관람했으며, 많은 수의 관람자는 학생들이었다. 이 전시에서는 어떻게 대한민국이 10년 동안에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사진과 글로써 보여주었고, 6·25전쟁 이후 어떻게 한국인이 자조(Self-supporting)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하였다고 평가했다.[139] 허은이 말한 것처럼 1960년대 미국이 한국에서 추진한 공보활동은 제도적인 면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근대화에 요구되는 신념을 불어 넣고, 적대적 요인을 배격하는 것이었는데,[140] [10년간의 한국 발전상] 전시는 이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냉전체제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1960년대 전반 한국사회의 화두였던 '조국근대화'를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조력했던 셈이다.

(3) 과학기술 전시

과학기술 전시로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와,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 경쟁에 대한 전시가 있다.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는 미국공보처의 첫 사업은 원자력의 평화이용 캠페인(Atom for Peace Campaign)의 일환으로

137) 「Exhibit: A Decade of Korean Progress」; 「Preliminary Sketch—Proposed Exhibit City Hall Square Seoul, Korea, 1954-1964 A decade of progress in Korea」
138) RG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P 8 Fair & Exhibitions, KOR S(SE), 1/1/64, 「Solo Exhibition(United States National Exhibition) Seoul, Spring 1965」
139) 「Country Assessment Report」
140) 허은, 앞의 글, 2008, 197-198면.

개최된 전시였으며, 1956년과 1960년 두 차례 한국에서 있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캠페인을 위해 먼저 원자탄으로 인해 각인되어버린 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자했다. 미국해외공보처는 라디오, TV, 영화, 서적, 박람회 등의 미디어를 동원해 책은 평화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국제여론을 형성하려고 했다. 한국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감정에서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분명 죽음의 폭탄이었지만 미군정은 그것이 한국인에게 해방과 등식으로 인식되게끔 여론을 유도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된 1956년 9월에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가 문교부와 주한미국공보원 주최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개최되었고, 서울에서 75만 명이 관람할 정도의 상황이었다.[141] 1960년의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에는 윤보선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여했고, 사용된 전시 화보와 모형은 1961년에 한국원자력원에 장기대여 되었다. 한국원자력원에 장기 대여된 화보와 모형의 목록은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원자력원에 장기 대여된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 화보와 모형[142]

번호	명칭	수량	비고
12	원자력의 선구자들	1	
14	원자력 연쇄 반응	1	
18	원자력 연료	1	
19	광석 표본 연쇄로서의 가이거(Geiger) 반동록 방사능 (콜로라도 초원을 배경으로)	1	
20	현재 알려진 생산 원천인 우라늄과 토륨	1	
21	우라늄 광석의 처치와 생산을 보여주는 9개의 배경조명의 색상이 있으며 투명한 전시도구	1	
24	다른 반응자들	1	
25	방사능	1	
25-X	보호용 풍선 슈트를 입고 있는 마네킨과 사진 화보 (플라스틱 풍선 슈트를 입고 일하는 사람의 사진 포함)	1	화보와 모형
29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배	1	
35	직접적인 방사선	1	

141) 김려실, 앞의 글, 2018, 332-333면.
142)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43	진단	1	
47	방사성 코발트로 암 처치하기	1	화보와 모형
53	방사성 동위원소가 산업을 어떻게 돕는가?	1	
54	방사성 동위원소가 산업을 어떻게 돕는가? (오일 파이프 라인에 가이거 반동록 방사능 사용)	1	
61	원자력 발전소	1	
모형	원자력 반응로 모형	1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의 주요 전시물들은 한국원자력원에 장기 대여되었는데, 이는 1962년 가동된 연구용 원자로와 관련한 인력양성의 목적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143] 아울러 미국공보원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는 미국공보원의 원자력 평화이용 캠페인과 연결되었는데, 이 캠페인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되었다. 1955년 미국공보원 일본지부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농업, 의학, 위생학 등 평화적 목적을 위한 방사성 동위 원소 사용법을 소개한 것이었다.[144]

미국과 소련의 우주경쟁에 대한 전시도 1960년대의 중요한 전시주제였다. 1960년대 미국 우주계획의 주요 목표는 우주비행사를 달에 비행시킨 다음 지구로 무사히 귀환시키는 것이었다. 첫번째는 머큐리 계획으로 1958년부터 시작되었고, 1962년에는 우주비행사 글렌이'우정' 7호를 타고 지구 주위를 돌았다. 두번째로는 제미니 계획으로 우주에서의 우주선끼리의 랑데부, 궤도 변경 등이 진행되었다. 세번째로는 아폴로 계획이었는데, 유인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켰다가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이었다. 소련의 스프튜닉호가 먼저 우주로 향했지만, 달 착륙과 귀환 등의 우주 경쟁에는 소련을 능가하려는 미국의 우주 계획이었다.[145] 1966년 [제미니 전시]를 진행한 시점은 제미니 11호의 비행이 효율적으로 완수된 8일 후이며, 이 비행에서 우주비행사 콘라드(Charles Conrad)와 고든(Richard Gordon)은 고도와 도킹에서 새로운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Memorandum of Transfer on Long-Term Loan of Components of Atoms-for-Peace(medium size) Exhibit Project S_92, 1961.6.15.

143) 김려실, 앞의 글, 2018, 333면.

144) Tsuchiya Yuka, 앞의 글, 2014, 135면.

145) 미국공보원,『미국의 유인 우주계획』팜플릿, 1966, 1-8면.

기록을 세운다.[146] 1969년의 [달 착륙 실황사진 및 모형 전시회]는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열렸고, 전시를 위한 달착륙 우주선 모형은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서울시내퍼레이드를 하였다. 아울러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남산공원에 외부 텔레비전 스크린을 만들어 놓고 발사부터 달착륙까지의 역사적 이벤트를 송출했다.[147]

냉전과 자유진영 관련 전시, 경제발전 전시, 과학기술 전시는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유진영에 대한 한국인들의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였다. 1950년대에 전시가 미국, 미국문화 등에 대한 이국적 감상이었다면 1960년대의 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이었다. 아울러 이러한 전시가 관람객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하는 측면도 언급될 필요가 있다. 김한상은 수입된 영화가 문자적인 합리성을 전달하는 도구라기보다는 다수의 화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그 내용에 친숙하지 않은 관객에게 보냄으로 지역의 관객 앞에 그들 자신의 세계를 개발시킨다고 했다. 선전영화의 수용은 경우 합리적인 설득보다는 보는 경험에 치중한다고 하였다. 선전영화는 그 메시지에 의해 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는 위치에서도 기능한다고 했다.[148] 선정영화와 유사하게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도 시각적 매체로서 관람자의 경험을 일으키고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의도를 한국인들이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시각적 매체 사용과 더불어 전시가 개최된 공간의 장소성도 관람자들이 전시 내용 수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960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는 덕수궁의 함녕전을 이용했고, [베를린: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는 국립중앙공보관, [반공 전시]는 화신백화점 4, 5층을 이용했는데, 더 많은 관람자들의 관람을 할 수 있게 한 동시에 장소적 편안함으로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달 착륙 우주선과 관련해서는

146) 「Gemini Model Exhibit」
147) Han Sang Kim, *Cine-Mobility: 20th Century Transformations in Korea's Film and Transfortation*, Harvard Univ. Press, 2022, p.131.
148) Han Sang Kim, *Cine-Mobility: 20th Century Transformations in Korea's Film and Transfortation*, Harvard Univ. Press, 2022, p.9.

서울 시내의 퍼레이드, 남산공원의 대형 텔레비전 스크린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장소성과 이동성에서 관람자를 더 유인했다고 말할 수 있다.

3) 한국 내의 정치상황과 연관된 전시

미국 공보원의 전시 중에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을 보인 것도 있었다. 4·19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고, 미국 공보원 서울지부는 정부와 시민에 대한 책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윤리와 교육의 역할을 표명하였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 전시는 1960년 초에 계획되었는데, 선거운동이 폭력과 위협으로 위축되었기에 전시를 철회했었다. 4·19혁명 이후 사회 분위기가 개선되었고,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 전시가 진행되었다.[149]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 전시는 1960년 초 격변하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연기되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60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도 확인할 수 있다.[150] 미국공보원의 [선거] 전시는 일부를 도로변에서 볼 수 있었고, 전시장 내에는 50여개의 화보가 미국의 선거절차를 중심으로 전시되었으며, 선거운동 자료(텔레비전 토론회 등)가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시공간에 투표부스가 설치되었고 선거방법 설명이 있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명 정도의 관람자가 있었지만, 매일 300명 정도로 증가했고,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는 5천 명 정도 까지 되었다. 선거일에는 선거결과 현황표가 미국공보원 극장에 설치되어 관람자가 자세한 결과를 볼 수 있었다.[151] 1963년에는 베트남의 상황을 주제로 한 [베트남에서의 게릴라 전쟁] 전시를 진행하기도 한다. 미국공보국은 한국인과 한국정부가 북베트남의 공격을 포기하게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과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생각했다. 한국군의 파병에 관한 최종 승인이 난 상태였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정에는 심리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여겼다.[152] 정일준이 말한 것

149) 「"Great idea of mankind" Exhibit Capture Audience Imagination」
150) 1960년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존 F. 케네디가 당선된다.
151) 「Four Successful Large-Scale Exhibits in Seoul」

처럼 미국 공보원 한국지부의 활동은 냉전기 미국이 구사한 문화정치의 생생한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1960년대 한국인들이 미국을 '영원한 친구'로 사고하는 코드를 공유하게 했다.[153]

5. 결론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미국 정부의 정치사상, 미국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영화, 출판, 방송, 전시 등 수많은 영역에서 노력했다.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까지는 이 공간을 사진전 등에 대여해 주는 것이었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는 공간을 대여하는 전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국의 문화, 과학 등을 소개하는 전시를 진행한다. 1960년대부터는 구체적인 공보계획에 따라 규모가 크고 다양한 전시를 진행할 것을 볼 수 있다. 미국공보원 서울지부의 전시는 자국의 공보원에서 제작한 전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소개하기도 했고, 서울지부에서 직접 기획, 제작한 전시도 있었다. 1964년의 사례를 보면 미국 내에서 제작된 전시로 [우주과학에서의 미국의 발전] 등 10개 전시를, 서울지부에서 직접 제작한 전시로 [미국의 한국 원조와 한국의 발전] 등 20개를 개최한다. 미국공보원의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지부 이외에도 한국의 다양한 문화원을 통해 복제된 화보를 전시하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미국공보원의 전시 중에는 해당 연도에 주력했던 전시가 있었는데, 이 전시는 냉전과 자유진영, 경제발전, 과학기술 등을 주제로 했다. 특히 소련과의 우주개발 경쟁과 연관해서 우주과학과 관련된 전시도 여러 번 개최되었는데, 이러한 전시로는 1960년 [파이오니아 인공위성 전시], 1961년의 [우주비행사의 개척] 전시, 1966년 [우주선 제미니] 전시, 1969년의 [달 착륙 실황사진 및 모형 전시회] 등이 있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한 전시도 보였는데, 이러한 전시로는 1960년 4·19혁명과 연관해서 연기했던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 전시, 1960년 케네디 대통령 당선을 전후해서 진행

152) 「Confidential : Seoul 746」
153) 정일준, 앞의 글, 2003, 47면.

되었던 [선거] 전시, 1963년 베트남에서의 상황을 다룬 [베트남에서의 게릴라 전쟁] 전시 등이 있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중요 전시들은 공보원이 아닌 다른 공간들을 활용하기도 한다. 1960년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는 덕수궁을 활용했고, 1961년 [베를린 :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 전시는 국립공보원을 이용했으며, [반공전시회]는 화신백화점을 이용했다.

미국 공보원은 이미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미국의 정책과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한국인들에게 미국을 계속적으로 지지해 줄 심리적 영향의 필요에서 이러한 전시활동을 계속해 나갔다. 1950-60년대 미국공보원의 전시는 냉전이라는 체제 아래서 한국인이 미국의 문화, 정치, 과학 등을 긍정적으로 여기게 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 부록: 1950-60년대 미국공보원(USIS/Seoul) 관련 전시 목록[154]

연도	기간	전시명	장소	내용	주최	관람인원
1956	9.-10.	Atom of Peace(평화를 위한 원자력)	미국공보원 문화관, 부산, 대구		미국공보원	1,040,000
1957	4.3. -5.5.	Family of Man(인간가족)	미국공보원 문화관		미국공보원	420,000
1958	6.	Image of America(미국의 인상)	미국공보원 문화관		미국공보원	
1958	6.13. -20.	This is the American Earth(이것이 미국의 국토)	미국공보원 문화관		미국공보원	5,300
1958	7.26. -8.9.	Korean Artists Look at the World(한국미술가가 본 세계)	미국공보원 문화관	한국의 주요 미술가들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본 감상을 그림 등으로 표현한 것을 전시	미국공보원	
1958	9.	Labor Day(노동의 날)	시청 앞 광장(부산, 대구, 광주 지부)	미국의 더 나은 노동임금 등에 관한 전시로 시청 앞 광장에 화보 형태로 전시	미국공보원	
1958	11.11. -30.	전국과학박람회	경복궁	X-15 모형, 태양 에너지 키트 등	미국공보원	103,683
1958		Image in Oil (석유에서의 이미지)	미국공보원 문화관, 광주	"자연의 풍요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석유 등을 찾는 음향장비 등을 사진으로 전시	미국공보원	65,000
1958	12.16. -1.9.	Nobel Prize(노벨상)	미국공보원 문화관	노벨 수상자를 중심으로 한 화보 전시 (미국공보원문화관은 을지로 1가 개풍빌딩에 있음)		
1959	1.5. -19.	Intenational Geophysical Year 전시	미국공보원 문화관	국제 지구물리학의 해 관련 전시로 125개의 사진 복사본이 대학, 문화원 등에 송부됨		
1959	1.28. -2.10.	Life Photographers	미국공보원 문화관	라이프 잡지의 사진을 중심으로 한 칼라, 흑백 사진 전시	미국공보원	50,000
1959	6.2.-6.10	Impressions of American (미국의 인상)	미국공보원 문화관	48점의 수채화로 이루어진 전시로 1954년 미국을 방문했던 아시아 작가들의 그림	미국공보원	

1959	10.	Progress (발전)	미국공보원 문화관	한국에서의 미국의 원조 경제 활동		
1959		화폐		10개의 Peace Dollar, 미국 Peace Dollar의 역사 관련 서적, 화폐관련 서적, 만화 등	미국공보원	
1959	12.14. -30.	Cooperatives in the U.S. (미국의 협동조합)		Korean Federation of Agriculture Cooperative의 주관으로 이루어진 사진 전시로, 극동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공개됨, 지방전시는 광주, 대구, 부산이 예정됨	미국공보원, 한국농업 협동연합	4,000
1959		Human Right (인권)		30개로 이루어진 인권선언을 설명하는 화보 전시로 Korean Hunan Right Association의 지원으로 진행했음, 사진 화보으로 된 전시화보, 50세트를 지역의 문화원에 보냄	미국공보원, 한국인권 협회	
1960	1.5.-1.31. (서울) 2.12.-22. (부산)	Pioneer Rocket (파이오니아 로켓 전시)	미국공보원 문화관	우주비행선, 로켓 사진 등을 화보로 전시	미국공보원, 한국공군	160,000
1960	1.23.-2.4.	Freedom day (자유의 날)	미국공보원 문화관	사진전시로 5만명의 북한, 중국의 포로들이 자유를 선택한 날을 기념함, 1960년에는 판문점과 타이베이에서도 이를 기념하였고, 판문점 전시는 백선엽 장군 관람	미국공보원	매일 500명
1960		Divided Germany : A Test for Freedom (분단된 독일: 자유에 대한 시험)		서독의 경제 재건, 동베를린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는 동독의 사진, 에니메이션과 슬라이드 쇼 등도 있었음, 이후에 부산, 대구, 광주 전시가 계획되었음	미국공보원	매일 500명
1960	5.5.-5.20.	Great Ideas of Mankind (인류의 위대한 사상들)	미국공보원 문화관	30개의 화보로 이루어진 전시로 서울에서 전시한 후, 광주, 대구, 부산의 문화원에서 전시하였음, 화보의 복사본이 중・고등학교, 대학 등에 배포되었음(1,500세트, 45,000개의 개별사진 제작, 미국공보원 홍보자료가 있음)	미국공보원	매일 600명

1960	9.9.-9.18.	Atoms-for-Peace (평화를 위한 원자력)	덕수궁 전시홀	16의 화보와 한 개의 모형으로 이루어진 전시, 서울에서의 전시였지만, 부산과 대구에서도 단체관람을 함, 윤보선 대통령은 한국원자력원에 상설전시되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를 개막(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전시를 한 후 한국원자력원에 이를 장기대여했고, 다른 전시품은 용산의 미군 창고에 보관함)	미국공보원	61,000
1960	9.26. -12.10.	미국의 선거	미국공보원 문화관	50개의 화보로 이루어진 선거 절차가 전시의 중심, 선거홍보물, TV 토론, 전자게시판, 투표부스 등이 있음, 공보원 밖의 도로 편에서도 전시를 볼 수 있음, 선거일에는 수천명이 입장할 수 없어 돌아가기도 했음		100,000
1960	10.20.-30.	UN-99 Nation Strong (UN 99개의 강력한 국가)	시청광장	UN 99개 회원국의 성장과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	미국공보원	100,000
1960	11.11.-30.	제6회 과학전람회	경복궁 국립미술관	전국 학생들이 참여한 과학전람회에 미국공보원이 협력했는데, 인공위성, 탐사체 X-15(우주권 비행) 모형, 핵잠수함 화보 등 전시	문교부	103,683
1960		선거	미국공보원 문화관	50개의 화보에 선거절차, 선거운동 자료가 전시, 투표 부스도 있음		
1961		Astronaut Exploitation (우주비행사의 개척)	시청광장	미국 최초의 인간우주비행 계획(머큐리 계획) 전시, 2차 머큐리 계획 성공, 우주비행사 Grisson의 인터뷰 영상 상영(6・25 전쟁에서 100회 출격), 5개의 황동 전시 케이스에 10개의 화보 설치),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진행	미국공보원	

1961	8.26.-9.6. (서울) 9.15.-25. (부산)	Berlin: Crisis Made in Moscow (베를린: 소련이 만들어 낸 위기)	국립 중앙공보관	헬름슈테트에서 베를린까지의 아우토반 모형, 베를린의 상황에 대한 세계의 논평 회전 화보, 베를린에 진주했던 소련의 탱크 입체 사진(1953년), 베를린 물자보급(항공, 육로) 등, 영화상영 있음, 서울 전시 후 부산 이동	미국공보원, Korean information service	32,700 (서울) 8,685 (부산)
1961	9.9. -9.18.	Atoms-for-Peace(평화를 위한 원자력)	한국 원자력원	1960년에 전시되었던 것을 한국원자력원에서 장기대여 하여 전시함, 윤보선 대통령은 한국원자력원(Office of Atomic Energy Republic of Korea)에 상설전시되는 평화를 위한 원자력 전시를 개막함	미국공보원	
1961		Anti -Communist (반공전시회)	화신 백화점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목적, 위장과 기만, 아시아의 공산주의, 한국에 대항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책, 공산주의 침략의 방법, 공산주의 독재, 북한의 실상 등	미국공보원, 육군본부	400,000
1961		Foreign Investments in the USA (미국에서의 외국 투자)				
1961		Newsmen Speak: Journalists on their Craft (뉴스맨이 말하다: 기자들 작품)	미국공보원 문화관	국제기자주간을 기념해 전세계 주요 기자의 활동을 20개의 화보에 전시. 국립명동극장에서도 전시를 진행	미국공보원	
1961		Pioneer V Satellite(파이오니아 5호 위성)	미국공보원 문화관	사진 화보 전시로, 전시 이후에 27개의 지방 미국공보원에서 전시됨	미국공보원	
1961		Mistress of the White House (백악관의 여주인)	시청광장	5개의 황동 전시케이스에 화보 전시	미국공보원	
1962		Space Lecture Demonstration Kit (우주 강연 시연 도구)		우주관련 강연 등을 위한 시연 도구로 미국공보원 서울센터에서 전시했고, 이 때 기자와 대학교수, 고등학교 과학교사들이 초청되었음, John Glenn, Space Capsule과 관련해서 S.K.Wie(위상규) 교수가 많은	미국공보원	

				도움을 줌, 사관학교, 한양대, 서울대, 한국과학센터 등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됨, 관련해서 다음 행선지인 타이완에 조금 늦게 전시물이 도착하게 됨		
1963		The Guerrilla War in Viet-Nam (베트남에서의 게릴라전)				65,000
1965	6.7.-21.	A Decade of Korean Progress — 1955-1965 (10년간의 한국의 발전상)	시청광장	1955-1965년 10년 동안의 한국 경제의 변화 (특히, 미국 원조를 중심으로 전시를 했으며, 통계적 데이터, 역사적 정보, 경제적 사실을 7가지 주요 영역에서 살펴봄), 개막식에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 서울시청 광장 전체를 활용한 전시로 기념탑이 있고, 화보 전시로 진행	미국공보원, USOM (Korea)	160,000
1966	3.18.-24. (서울), 5.18.-24. (대구), 6.17.-24. (부산), 12.6.-17. (광주)	American Prints Today (미국현대판화전)	미국공보원 문화관, 광주 센터 등	62개의 현대 회화 판화작품이 전시됨, 한국의 예술 애호가들이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미국 현대 회화와 인쇄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임, The Printmaker와 Color Lithography: An art of Medium이라는 영화상영도 있었음, 미술관련 학생들과 교사들이 인쇄과정 등을 알 수 있었음	미국공보원	
1966	9.23. -10.3.	Gemini Model Exhibit (우주선 제미니 전시)	서울 시민회관 옆 공터	우주선 제미니의 실물 크기 모형 전시로 제미니 아폴로 프로젝트 사진도 전시했으며, 관련 강연과 Meeting in Space 영화상영도 있었음, 『미국의 유인 우주 계획』이라는 책자 있음, 과학세계사와 서울특별시가 후원했음	미국공보원	60,000

154) 출처: RG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 참고문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RG 306 Records of the U. S. Information Agency, Records Concerning Exhibits in Foreign Countries, 1955-67.
RG 306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Exhibition-Korea.
RG 59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P 8 Fair & Exhibitions, KOR S(SE), 1/1/64, 「Solo Exhibition(United States National Exhibition) Seoul, Spring 1965」

高 橿, 『Projecting "Soft Power" of the United States on South Korea : "Perception Politics" of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Korea during the 1950s and 1960s』,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김려실, 「1950, 60년대 주한미공보원(USIS) 영화의 '아시아 문화' 표상에 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4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3.
_____, 「'원자력 평화이용' 캠페인과 주한미공보원(USIS)의 영화공보」, 『비교한국학』 26-2, 국제비교한국학회, 2018.
김은영, 『한국영화의 문화냉전 편입과정(1945-1968)』,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16.
김준형, 『새로 읽는 한미 관계사—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창비, 2021.
김한상, 「주한미국공보원(USIS) 영화선전의 표상과 담론」, 『사회와 역사』 95, 한국사회사학회, 2012.
_____, 「주한미국공보원(USIS) 영화의 응시 메커니즘—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와 가시화하는 힘의 과시」, 『역사문제연구』 30, 역사문제연구소, 2013.
_____, 『Uneven Screen, Contested Identities—USIS Cultural Films and the National Imaging in South Korea 1945-1972』,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3.
남영희 · 이순옥, 「해방기 주한미국사령부 공보원 지역분관의 설립과 문화활동」, 『석당논총』 78, 동아대 석당학술원, 2020.
미국공보원, 『한국미술가가 본 세계』 팜플릿, 1958.
_____, 『미국의 유인 우주계획』 팜플릿, 1966.
박태균, 「1960년대 초 미국의 후진국 정책 변화: 후진국 사회의 변화 필요성」, 『미국사연구』 20, 한국미국사학회, 2004.
_____, 「잘못 깨운 첫 단추—이승만-아이젠하워 정부의 갈등」, 『역사비평』 86, 역사비평사, 2009.
이성철, 「1950년대 경남지역 미국공보원(USIS) 영화제작 활동—창원의 상남영화제작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4-2, 지역사회학회, 2013.
張泳敏, 「한국전쟁기 주한 미국공보원의 선전활동—인쇄매체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5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1.

정일준,「미국의 냉전문화정치와 한국인 '친구 만들기': 1950·60년대 미공보원(USIS)의 조직과 활동을 중심으로」, 학술단체협의회,『우리 학문 속의 미국』, 한울, 2003.
_____,「미국의 제3세계 정책과 1960년대 한국사회의 근대화—근대화이론의 제도화를 중심으로」,『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04.
차재영·염찬희,「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의 기록영화와 미국의 이미지 구축」,『韓國言論學報』56-1, 한국언론학회, 2012.
허 은,「1950년대 주한 미공보원(USIS)의 역할과 문화전파 지향」, 고려사학회,『한국사학보』15, 2003.
_____,『美國의 대한 文化活動과 韓國社會의 反應—1950년대 美國政府의 文化活動과 知識人의 對美認識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4.
_____,「1960년대 미국의 한국 근대화 기획과 추진—주한미공보원의 심리활동과 영화」,『한국문학연구』3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Han Sang Kim, Cine-Mobility: 20th Century Transformations in Korea's Film and Transfortation, Harvard Univ. Press, 2022.
Tsuchiya Yuka,「The Atoms for Peace USIS Films: Spreading the Gospel of the "Blessing" of Atomic Energy in the Early Cold War Era」,『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Vol.19 No.2,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2014.

【Abstract】

Exhibitions of the Korean branch of the U.S. Information Service in the 1950s and 1960s and its impact

Kook Sungha*

The Korean branch of the U. S. Information Service(USIS/Seoul) has worked in numerous areas, including movies, publishing, broadcasting and exhibitions, to spread the U. S. government's political and cultural ideas to Koreans. Since the mid-1950s, exhibitions have been held to introduce American culture and science. After 1960s, USIS/Seoul set up 「Country Plan for Korea」 and made many exhibitions such as subject of science, economic, anti-communist. The exhibition of USIS/Seoul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introduced by the Korean branch itself.

Among the exhibitions of the USIS/Seoul, there was an exhibition that focused on that period. [Atoms-for-Peace] exhibition, [anti-communist] exhibition are those exhibition. There was also an exhibition considering the political situation. There were exhibitions of [Great Ideas of Mankind] during the April 19 Revolution and election exhibitions that took place before and after the election of President John F. Kennedy. Several exhibitions related to space science were also held in connection with the competition for space development with the Soviet Union. These exhibitions include the [Pioneer V Satellite] Exhibition.

USIS/Seoul thought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eans were positive about U. S. policies and activities. Nevertheless, USIS/Seoul continued their exhibition activities out of the need for psychological influence to continue to support the United States by Koreans. USIS/Seoul conducted an evaluation of the exhibition after the exhibition. Not only quantitative factors such as the number of Koreans who watched the exhibition, but also the direct evaluation of Koreans and expression in newspaper articles were checked. The exhibition by USIS/Seoul served as a tool for Koreans to think positively of American culture, politics, and science.

Keywords: The Korean branch of the U. 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Cultural Center, exhibition, exhibition evaluation, introduction of American culture.

접수일: 2023.03.23. || 심사일: 2023.04.17. || 게재확정일: 2023.05.30.

* Curator,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